

### 3 강 교회생활의 기쁨, 부담, 그리고 상급 주일 오전 집회(예배)

요한 1 서 4:7-21

####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7-12 절)

2022 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이미 전쟁의 참화로 고통을 당하는 지구거주인들에게 또 다른 전쟁의 재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이어진 트럼프와 네탄야후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은 물론 전 세계가 전쟁의 참화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종말의 특징 중 하나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세태입니다. 이란과 레바논은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실험을 부단히 해내고 있습니다. 남한을 교전 중이 적대국가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광기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기승을 부립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구정원을 파괴하는 전쟁광들의 불법과 만행이 하나님의 보좌를 어지럽히는 이 참혹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1-6 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말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영을 믿고 분별하여 받아들일 것을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입고 오심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살아내신 발자취를 강조하는 것은 주와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직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며 영생비법을 전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영생의 길은 비법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랑실천입니다. 사랑은 공기처럼 일상적이고 비근하지만 하나님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역사하지 않고 이 세상이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탐욕과 흉악한 이기심에 맡겨졌더라면 이 세상은 벌써 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죄인용서가 가능한 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영생실천 공동체가 이 세상의 기둥이 되게 했습니다. 세상을 지탱시키고 하나님께 계속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일괄죄용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죄용서, 영생선물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들입니다. 이런 영들에 지배당하는 교사들은 거짓선지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미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겼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안목정욕, 육신정욕, 이생만 생의 전부라고 믿는 이생사랑질의 총화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영속적이지 않는 가치와 현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정욕과 이생사랑질에 탐닉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우주의 궁극원리가 사랑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주의 궁극은 태극이나 허(텅빔), 공(emptiness) 등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우주의 궁극적 주재자인 하나님과 우주적 사랑운동에 박자를 맞추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사랑이 우주적으로 박동치는 현장은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선도적으로 보내주신 화목제물 독생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보내주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순간은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박자가 우리 심장을 고동치게 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박동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시작되는 우주적 사랑운동이 우리 가슴을 부드럽게 추동시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언약공동체 지체간의 우정과 유대와 결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화목제물급 선물로 줄 정도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100%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화목제물 독생자내어주심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100% 구현됩니다. 하나님사랑의 원박자에 맞춰 춤을 추면 우리 온몸이 하나님의 독생자내어주심 사랑의 울동에 흥겹게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이 짐이 아니라 자유요 선물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은 이런 하나님사랑을 실천하도록 주어진 한시적인 선물입니다. 서로 사랑의 길이 메르스 괴질을 이기는 길입니다. 메르스 괴질은 우리 안에 뿌리내린 죄성이며 악마적 탐욕입니다. 이 세상에는 격리가 필요한 확진환자급 인물들이 나라나 각종 기관들의 통치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에 투신된 형제자매들의 영생실천은 메르스괴질 진동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항구적인 대안입니다.

###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13-21 절)**

요한일서는 구약성경의 신명기와 가장 상통하는 책입니다. 요한일서는 세 가지 면에서 신명기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연동되어 강조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정의를 둘 다 하나님사랑은 하나님계명 준수라고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하는 행위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예배와 이웃/형제/심지어 원수사랑계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자기 자신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계명준수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독교신앙은 매우 실천적이고 분명한 객관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셋째, 언약공동체와 세상을 날카롭게 분리합니다. 세상과 형제자매적 결속으로 유지되는 신앙공동체를 분리하는 목적은 세상사람들에게 하나님사랑을 잘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 분리시켜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나라의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를 인근 가나안족속까지 나누기 위함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 주신 땅의 소출을 나눌 때 고아, 과부, 객(외국인)에게까지 나누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또한 다른 가나안 부족들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가나안 입성과 정착 자체를 거부하고 배척한 원주민들과는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대적했으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안으로 유입, 동화되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강조하고 성령의 오심을 강조함으로 신명기를 뛰어넘습니다.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성령강림을 멀리 내다보고 예언했고 요한일서는 이 하나님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과 성령부어주심을 직접 맛보는 단계를 다룹니다. 이 단락의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침투적 결속과 일체감을 창조해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승천 후,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성부하나님이 보내신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투신된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음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세상에 증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요 1:12; 롬 8:15).**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의 첫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성령내주와 영적 소통개시를 알리는 기도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권세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권세가 생겨나고 이 두 권세를 일정기간 행사하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모방과 성화권세가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사랑의 절정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은 그 궁극에 있어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사랑은 오래참는 사랑이며 죄를 씻어 없애는 사랑이며 쓰레기같은 죄악으로 만신창이된 우리몸과 마음을 재활복구시켜 재생시키며 부활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사랑은 잘못 살아버린 원통한 우리 인생의 자책감과 후회, 죄책감을 극복케 해주시는 부활소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부서진 관계의 회복사랑입니다. 하나님사랑은 의심하고 배척하는 자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자녀의 폭력사정권에 자신의 몸을 디미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주의 궁극은 하나님사랑입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입자는 양자, 소립자, 미립자, 커크가 아니라 하나님사랑입니다. 하나님사랑은 우주의 기초석이며 우주운행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사랑은 우주천체와 극미의 피조물 모두를 움직이는 영적 물리력이며 영적 대중력입니다. 우주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셋째, 이런 하나님사랑을 맛보고 나면 최후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사랑이 우리 성도 안에 온전히 실현되는 순간은 우리는 최후심판 공포시나리오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사랑은 죄와 죽음, 최후심판의 두려움을 극복케 합니다. 하나님사랑은 분리와 배척, 적대를 극복하는 우주적 중심에너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주적 중심대중력에 끌려가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악을 분리시키는 영원한 최후심판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주궁극 대중력장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최후심판의 분리와 배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된 하나님사랑은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 하나님사랑 경험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대중력장에 아직 빨려들지 못한 우주적 파편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천체

오케스트라와 궤도지휘에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우주를 방황하고 가로지르는 가로등 무법횡단자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제적, 선도적 사랑에 붙들린 사람만이 형제자매사랑을 할 수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의 중력장에 붙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위해 자기소진적, 자기희생적 사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가족사랑, 자녀사랑, 부부사랑, 직장동료사랑, 교우사랑, 그리고 이웃거주 사랑과 배려, 심지어 지구 저 반대편의 궁핍한 이웃사랑, 심지어 원수사랑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도적, 선제적 사랑을 맛보았기에 우리는 능히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랑에 참여한 사람은 항상 설레고 항상 즐겁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환난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애통해 합니다. 독생자급 보물을 거룩하게 소진해가면서까지 사랑해 보는 자기소진적 형제자매 사랑실천을 해 본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명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사랑의 정의는 고린도전서 13 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도 유한합니다. 믿음,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사랑에 붙들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주적인 교신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사랑을 가장 깊고 넓게 경험한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직분이나 직위가 아니라 하나님사랑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은, 자기심장을, 자기재산과 재능과 시간을 그리고 자기자존감과 체면마저 거룩하게 희생시켜가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세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런 하나님사랑, 형제자매사랑이 구현될 예정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사랑을 먼저 맛본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사랑을 실감하지 못한 채 교회로 발걸음을 내민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사랑만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사랑이 우리 교회의 행동강령입니다. 하나님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기뻐 사랑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쉼 없이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은 맑은 산소처럼 우리교회를 쾌적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산소라는 말이 맞습니다. 러브 이즈 라일 옥시전. Love is oxygen.